

경찰,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수사하나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문제점 집중 지적 사실확인·자료 조사 나서... 필요면 수사 착수 방침

정부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가면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자체 특별감사팀을 꾸리고, 최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광주경찰도 사실확인 나섰다.

1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의 행정감사 기간에 불거진 도시철도공사 채용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광주경찰이 일부 시의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과 자료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광주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채용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들 자료들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 파악을 마친 뒤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혐의점이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내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채용 관련 절차 무시, 불명확한 인사 절차 등이 집중 지적됐다.

주경남(민주·서구4) 의원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1회로 진행됐고 1차 서류전형에서 565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전체를 합격시켰다"면서 "하지만 2차 면접은 3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면접위원들에 의해 진행돼 동일평가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방식은 '전공까지 고려하지 마라'는 내용도 없었음에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대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4명의 응시생 중 1명을 제외한 23명 모두 불합격처리했다.

또 광주시의회 김민중(국민·광산4) 의

원은 "지난 8월 진행된 채용과정에서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모든 채용 관련 서류를 서면결재했고, 서류 전형 5배수 제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최대 33배수의 합격자를 양성했고, 한 번 채점된 점수를 보정하는 등 면접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또 합격자를 발표하고 20일 가량이 지난 후 공사 규정을 개정, 역무 미화직 2명 감원하고 기존에 없던 비서직 2명의 정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원조정에 따라 현직 인력인 미화직은 2명 줄고, 비서직은 2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학연, 혈연, 지연 채용은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실시됐다"면서 "면접 문항도 150여 개로 채공돼 난이도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고작 0.81% 환수”

주경남 시의원 밝혀

광주시가 100여억원의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주경남(민주·서구4) 의원은 13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청의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적발 통보와 자치구 전수조사 이후 4년 이다 되도록 환수 대상 101억원 중 고작 820만원(0.81%)만 환수됐다"고 밝혔다.

법적 환수액 납부의무자인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기압류 가치분 등의 절차가 미흡해 불법 보조금 환수 행정이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29개 업체에 불법유가보조금 환수 대상 차량은 413대, 환수해야 할 금액만 101억6600만원에 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액은 82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재산 강제 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법적조치가 내려진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법인 재산에 대해 기압류나 가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했어야 할 시간을 행정절차 완결을 대며 차일피일 미뤄온 결과"라면서 "불법행위로 현세가 빠져나간 만큼 환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화물 지입차는 압류를 못하게 돼 있고, 업체와 분쟁까지 생겨 행정집행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각종 행정행위로 인한 실질 환수액도 6억원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LH·건설업체 컨소시엄 민간공원 개발 반대”

중앙·일곡공원 시민모임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도시공원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중앙·일곡공원에 대한 조성 방향 직접 설명 등을 요구했다.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 광주시에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중앙공원·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 명은 13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광주시와 윤 시장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LH가 공기업에 보장된 수용 권한을 악용해 건설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민간공원 개발은 공익을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며 "LH와 민간건설사의 컨소시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광주시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거버넌스 협의체에 대해서도 회의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를 시에 요구했으며, 광주시의회에는 공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광주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6일 오전 민간거버넌스 공론조정소위원회를 열어 1단계 대상인 수방·마북·송암·봉산공원 4곳을 제외한 21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2단계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매년 구제역·AI ... 전남 가축방역인력 부족 비상

72명 모집에 23명 선발 그쳐

특정지역 합격자 이탈현상 때문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잦아데도 이를 방역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남도는 최근 부족한 가축방역관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총원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가축방역관 72명을

모집하는데 34명이 지원해 최종 23명을 선발했다. 모집인원의 3분의 1도 뽑지 못한 것이다.

전북은 44명 모집에 35명이, 강원은 12명 모집에 9명이 각각 지원해 모두 미달했다.

경기, 충남, 경남은 지원인원은 미달되지 않았지만 모집인원을 채우지는 못했다. 이는 특정지역 합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탈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가 22명을 모집했지만, 최종 선발인원은 16명에 그쳤다. 반면 서울 20대 1, 광주 15대 1, 인천 10대 1, 세종 8대 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집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가 가축방역관 334명을 모집하는데 665명이 지원,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185명이 선발됐다.

김현권 의원은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전남, 전북 등지에서 시도별로 각각 다르게 모집공고를 내다보니 1명의 지원자가 여러 시도에 지원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합격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옮겨 가는 이탈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가축방역관 모집을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이탈현상을 줄이는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연 3만권... 재활용 5%”

김옥자 시의원 지적

광주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한 해 버려지는 책이 3만권에 달하지만 재활용되는 경우는 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국민·광산3) 의원은 13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도서를 매년 3만권씩 폐기 버리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3개 시립도서관(무등, 사직, 산수)에서 폐기한 도서가 2015년 2만7870권, 2016년 2만8506권, 2017년 3만권에 이른다. 폐기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기증하고 있



으며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매각 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556권을 기증하고 2만7314권을 매각, 매각 대금으로 130만원을 벌었다. 지난해에는 1386권을 기증하고 2만7120권을 매각해 239만원을 거둬들였고, 올해는 3만권 중 1665권만 기증하고 2만8335권(198만원)은 매각했다.

재활용률은 2015년 2.0%, 지난해 4.8%, 올해 5.5%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작은도서관들은 책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폐기 매각보다는 더 많은 도서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단속 3% 불과”

박춘수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 1회용품 제공업체와 분리수거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춘수(국민·남구3) 의원은 13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점검 대상 사업장 2만5466개 중 1년에 광주시가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 비율로는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수거 지도점검도 3102개 사업장 중 126개(4.1%)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회용품 금지사업장에 대해 연 1회, 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1회용품 불법 무상 제공과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만5000개가 넘는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수거는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후원 | KORAIL 광주본부 SR

본 상품은 우수해양관광상품공모전에 선정된 상품입니다

전북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 2일

1일차

-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 ▶ 수서역(07:10) / 지체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체역(07:59) 출발
- ▶ **광주송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 송호리해수욕장, 전북 양식장 견학(12:40)
- ▶ 땅끝마을 출발(15:00)
-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 땅끝마을 출발(16:30)
-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석식(17:00)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중식만 제공

2일차

- ▶ 조식 후 출발(07: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 슬로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봄의왈츠 세트장(09:40)
-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 백련사 출발(17:00)
- ▶ 광주송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석식(18:00)
- ▶ 광주송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체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조식만 제공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 - 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 - 지체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송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10명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
- 불포함사항: 여행자보험, 일정표상 식사3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 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 운영시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종이 변경됩니다. (승합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 메일: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